개국 29주년 MBN 보고대회
원조 한류
태권도 리부팅

MBN 보고대회란?

열린 세상, 열린 방송을 지향하는 MBN이 후세대에게 건강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개인과 기업, 국가 융성 및 미래 비전의 길을 제시하는 공익형 방송국 출범 기념행사입니다.

MBN의 싱크탱크인 미디어기획부를 중심으로 20~30대 젊은 청년들을 위한 국가적 과제를 개발해
미래 세대를 위한 행동 강령(Action Plan)을 제안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2017년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보고서'를 통해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에 대한 화두를 제시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중국판 4차 산업혁명 '중국의 智혁명', 2019년 빅데이터 비밀열쇠 'UNLOCK 혁명',
2020년 AI가 일으킬 변화 '초인 AI가 온다', 2021년 미래 이동 수단이 바꿀 인류의 삶 '모빌리티 혁명 新문명을 열다',
2022년 인류의 난제를 해결해 줄 꿈의 컴퓨터 '퀀텀컴퓨터 '무한시대' 연다' 등
매년 대한민국 발전전략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개국 29주년을 맞이한 2023년 MBN 보고대회에서는 '원조 한류 태권도 리부팅'을 주제로
태권도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예정입니다.

목 차

03
개요 및 프로그램

05
태권도, 한류의 원조에서 한류의 첨병으로

11
원조 소프트파워 태권도

27
태권도 K홀릭 문을 연다

52
후원사

개 요

행사명 개국 29주년 MBN 보고대회

주 제 원조 한류 태권도 리부팅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07:30 - 08:30

장 소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

주 최 MBN 매일경제 국기원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

07:30 - 08:10 원조 한류 태권도 리부팅 보고서 발표
발표 1 | 남상석 국기원 수석연구원
발표 2 | 오태윤 MBN 기자

08:10 - 08:30 조찬

원조 한류
태권도 리부팅
태권도,
한류의 원조에서
한류의 첨병으로
MBN
매일경제
국기원
세계태권도본부

태권도, 한류의 원조에서 한류의 첨병으로

소프트파워 시대, 태권도의 가능성은?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소프트파워 시대! 세계가 한류의 영향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류가 만들어 내는 소프트파워가 최근 국제사회의 신냉전 구도 속에서
그 어떤 미사일 시스템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류 전파의 첨병으로 다시금 주목받는 것이 바로 한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K스포츠 태권도입니다.
과연 태권도는 소프트파워 강국 대한민국의 전략무기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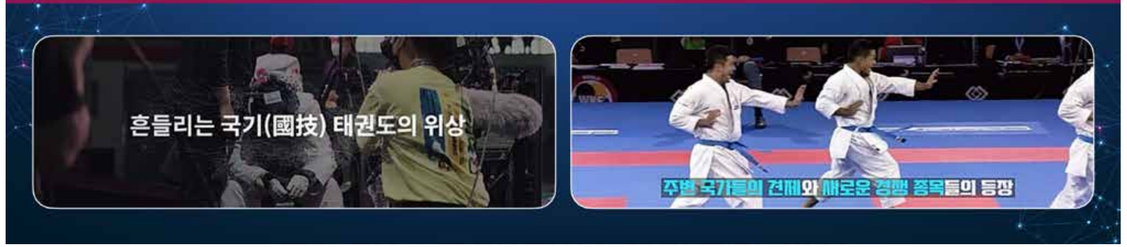
원조 한류 태권도의 기세

태권도의 세계화는 195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권도 사범들에 의해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간 태권도는 2023년 현재 세계 213개국 2억 명이 수련하는 글로벌 스포츠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이후 12개 이상 국가에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선물했을 만큼 넓은 저변을 자랑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태권도가 국민스포츠로 인식되고 있고, 인도는 세계 최초로 태권도 프로선수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예의와 존경심, 용기와 인내를 강조하는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도 높게 인정받아
미국, 중국, 싱가폴, 온두라스 등 전 세계 많은 나라의 학교에서 태권도를 정식 공교육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태권도, 한류의 원조에서 한류의 첨병으로

흔들리는 국기(國技) 태권도의 위상



문제는 대한민국 국기로서 태권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 성인 수련 인구가 줄어든 데다 저출산 추세로 인해 국내 시장이 위축되고, 그로 인해 산업적 성장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외적인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 간 경기력 격차가 줄어들면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되는 가운데,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자리를 빼앗으려는 일본과 중국의 견제가 계속되고, 흥행성 높은 새로운 종목들이 등장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태권도의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글로벌 헬스케어 콘텐츠이자 K컬처의 대표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화와 도전에 나서야 합니다.

태권도의 미래가 한류의 미래다

태권도라는 씨앗으로 싹을 틔운 한류는 하나의 신드롬을 넘어 전 세계를 휩쓰는 메가트렌드가 되었습니다.
K팝과 드라마는 물론 뷰티, 패션, 음식, IT 등 한국제품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호감은 가히 'K홀릭'이라 칭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태권도를 리부팅할 시간입니다.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세계화된 스포츠 태권도,
이제 MBN이 국기 태권도의 새로운 비전과 태권도를 통한 한류 확장 전략을 제시합니다!

원조 한류
태권도 리부팅
원조 소프트파워
태권도
MBN
매일경제
국기원
세계태권도본부

원조 소프트파워 태권도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국가 수는 191개입니다.
그런데,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이 태권도가 전파된 국가 수는 213개이고, 국기원 단증을 발급받는 국가 수는 203개입니다.
전 세계에 태권도가 뿌리 내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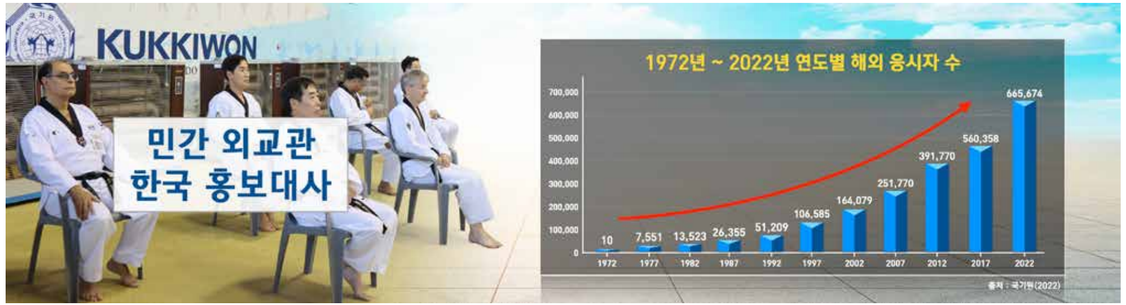
원조 한류 태권도 리부팅

현재 국기원에서 태권도 사범을 공식 파견한 나라들입니다.
아시아 19개국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까지 전 세계에 걸쳐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세계화는 1959년 국군 태권도 시범단의 해외 파견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민간과 정부의 사범 파견이 이어지면서 태권도 세계화에 불을 지폈습니다.

곽기옥 | 가나 태권도 전파 사범
태권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태권도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처음 3년 정도는 엄청 힘들었고,
(그래서) 시범을 많이 하러 다녔죠. 지금 현재 가나에서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인구가 22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큰 보람을 느끼죠.

김영숙 | 최초의 여성 사범 (현재 LA 태권도장 운영)
내 나이가 77인데, 중요한 건 현역이고 여자다 이거야.
나는 내 생명이 있는 날까지는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가든 태권도를 전파할 것이고,
곳곳에 자신 없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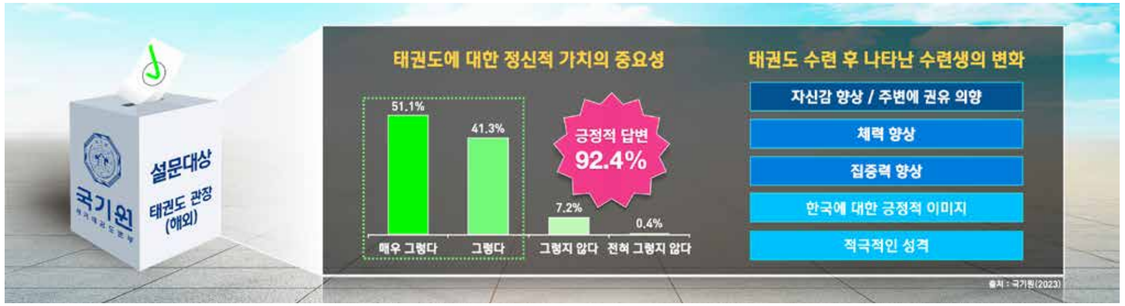
원조 소프트파워 태권도



태권도가 각국에 퍼지면서 이들은 태권도 사범을 넘어 민간 외교관, 한국의 홍보대사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해외 승·품단 응시 인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조 한류 태권도 리부팅

또한, 한국의 태권도장 매출액은 스포츠 교육기관 매출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의 많은 나라들이 태권도를 정규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태권도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태권도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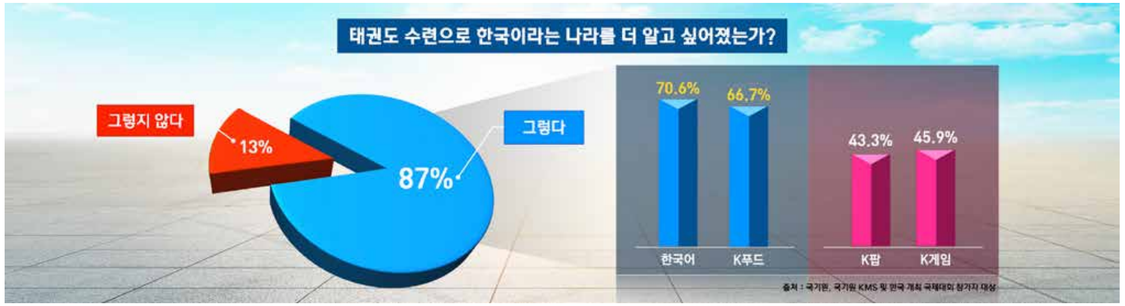
국기원 연구소에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태권도 관장에게 물은 결과, 수련생의 92%가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었고,
자신감과 체력이 향상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수련생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수련생도, 태권도를 통해서 자신감과 체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를 주변에 권유하고 싶고, 한국을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수련자들이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에 호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쟈드 누쫄로 | 프랑스 (수련 2년차)
Q. 태권도로 무엇을 배웠나요?
A. 태권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정신수련'이라는 걸 배웠는데,
동작을 성공해내는 과정에서의 노력들, 남을 배려하며 다치지 않게 하는 법들을 배운 것 같아요.

로멧 아켈 | 에스토니아 (수련 7년차)
Q. 태권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초등학교 시절부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새로운 기술들을 배웠어요.
한 경기, 한 경기 이길 때마다 인생에서 어떠한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원조 소프트파워 태권도



태권도 수련자가 한국 문화에 호감을 갖게 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관심의 대상이 아직 넓지 않았습니다.
국기원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어와 K푸드 등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K팝, K게임 등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습니다.

원조 한류 태권도 리부팅

한국에 대한 관심은 연령대별로도 조금 달랐습니다.
비교적 높은 연령층에서는 한국 여행과 한국인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젊은 세대에서는 K팝 같은 한류 콘텐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에 뻗은 뿌리를 통해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알리고 있는 원조 한류 태권도,
이제는 한류의 전략적 무기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태권도를 한류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조 한류
태권도 리부팅
태권도
K올릭 문을 연다
MBN
매일경제
국기원
세계태권도본부

2억 명. 태권도 수련 인구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배니 정말 많아 보이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축구 팬 숫자는 40억 명입니다.
2억 명, 만족할 숫자로 보이지 않죠.

태권도 K홀릭 문을 연다

축구뿐 아닙니다. 상위 스포츠 리스트를 보면, 1대 1로 대결하는 복싱이나 MMA, UFC가 포함돼 있습니다.

태권도,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5배 늘어난 태권 인구 10억 명이라면, 태권도가 그야말로 K컬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 MBN 보고대회 팀은 태권도 RISE 전략을 제시합니다.

R은 먼저 Region, 지역을 겨냥한 현지화 전략입니다.

태권도 K홀릭 문을 연다

그동안 사범님들이 세계 각국에서 태권도를 알려왔는데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태권도 기본정신은 유지하면서 세부사항은 현지 맞춤형 전략을 도입하는 겁니다.

태권도가 현지에서 스스로 클 수 있도록 현지 사범 양성을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 문화에 맞는 현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동에서는 지난 2004년 아랍권 여성에게 히잡을 쓰고 경기를 해도 좋다고 하면서 태권 인구가 크게 성장했죠.
양보할 수 없는 부분과 현지화가 가능한 영역에 대해 기준과 시스템을 만들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원조 한류 태권도 리부팅

이를 위해 태권도 4대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현지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산, 인력 구성, 시범단 파견 등 역할을 나누고 실행하는 데 있어 한층 효율적일 거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I, International입니다.

코트디부아르와 요르단이 딴 첫 올림픽 금메달은 태권도라는 사실 아십니까?
니제르와 가봉은 첫 은메달을, 아프가니스탄은 사상 첫 메달을 태권도에서 획득했습니다.

태권도 K홀릭 문을 연다

대한민국 첫 올림픽 금메달은 레슬링 양정모 선수라고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웠듯
이들 국가 어린이들에게도 태권도는 큰 자긍심으로 남을 겁니다.

원조 한류 태권도 리부팅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출액은 30억 달러.
이 가운데 태권도를 포함한 문화 관련 지출액은 1천 2백만 달러, 0.4%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늘려, ODA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태권도를 자랑스러운 스포츠로 여길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합니다.

태권도 K홀릭 문을 연다

해외 곳곳에서 거점을 잡고 있는 태권도장도 K콘텐츠 현장기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단 승품 심사 날을 자그마한 한류 축제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잡채나 떡볶이 같은 K푸드 데이나, 새로운 한류 콘텐츠를 교류하는 장도 가능합니다.
우리 기업은 이날을 마케팅과 홍보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S, 바로 Support입니다.
태권도를 주연으로 세우겠다는 생각보다 한국 문화를 더 알리는 Supporting actor, 조연 역할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태권도 K홀릭 문을 연다

한국 드라마에 흔한 장면을 모아 만든 일본 광고입니다.
실제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늘 저 초록색 병이 등장하지만, 드라마 주연은 아니죠.
하지만 하도 자주 등장하니 외국인들이 먼저 궁금해 찾아봅니다.
그동안 태권도를 주연으로 만들려는 콘텐츠 투자와 지원은 꽤 있었지만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이제는 자주 노출 시켜 조금씩 스며들게 하는 전략 수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신곡 뮤직비디오에서 태권도 안무를 선보인 전소미 씨처럼 말이죠.

또 요새는 SNS상에서 재미난 행동에 참여한다는 뜻의 ‘챌린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태권도도 전 세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재미있는 챌린지를 해보면 어떨까요?
태권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 사람들이 더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RISE의 마지막, E는 Event입니다.

6월 21일, 뉴욕 타임스스퀘어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요가를 하는 풍경 어떠신가요? 이날은 바로 세계요가의 날입니다.
인도 모디 총리는 요가가 기후변화 대처에 도움이 되고 인간과 세계, 자연이 하나임을 깨닫게 해준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4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요가의 날'을 제안해 지정됐죠. 그야말로 요가인의 축제입니다.

태권도 K홀릭 문을 연다

우리도 UN이 공인한 세계태권도의 축제를 만들어 냅시다.
태권도는 다른 격투기와 달리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보다 방어를 위해 만든 이 태권도 정신을, 평화와 국제 안보를 위한 기구인 UN에서 공인받는 겁니다.

2024년 UN 총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필요성을 알리고, 2025년에는 UN 세계태권도의 날을 지정받읍시다.

태권도 K홀릭 문을 연다

출처 : 헤럴드저널

UN이 정한 세계태권도의 날을 상상해 봅니다.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파리 에펠탑,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 모여 똑같은 기합을 넣으며 품새를 합니다.
화려한 태권도 시범단과 K팝 공연을 관람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K푸드를 맛볼 수 있는 페스티벌도 함께 진행되죠.

세계태권도의 날은 그야말로 온 세계인이 즐기는 K컬처 데이가 됩니다.

태권도 K홀릭 문을 연다

세계에 한국을 알린 원조 한류 태권도. 올라간다는 뜻의 RISE 전략을 통해 더 비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K열풍을 넘어 K홀릭 시대를 만들어 냅시다. 감사합니다.

후원사

LG

롯데지주

POSCO HOLDINGS

HYOSUNG

HYUNDAI MOBIS

GS

emart

SPC

JUNG KWAN JANG

HD현대오일뱅크

LS전선

LS ELECTRIC

LS MnM Metals & Materials

LS엠트론

yesco

MEMO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

MBN

김성철 부장
김현호 차장
오태윤 기자
정태웅 기자
양문혁 사원
신지선 연구원
이지예 연구원

국기원 연구소

박종범 연구소장
남상석 수석연구원
이미연 연구원
박지현 학술간사

(재)문화영토연구원

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
김정우 고려대학교 교수
김나혜 신한대학교 교수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MBN 미디어기획부 02-2000-3383 | mbnforum@naver.com | http://mbnstrat.co.kr/

원조 한류 태권도 리부팅

개국 29주년 MBN 보고대회

(우) 04627 서울시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3층
Tel. 02-2000-3383 E-mail. mbnforum@naver.com

주최

MBN 매일경제 국기원 세계태권도본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